

연극 음악감독, 독립음악 프로덕션 운영,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축제 기획 등 음악과 매개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 '회기동 단편선'을 만나봤다.



매 학기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제캠 기숙사 시설 현황을 짚어봤다.

# 대학주보

##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대면 전환 이후 완화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2022년 2학기부터 대면 체제에 들어서며 학점 인플레이션(인플레) 현상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측 그래프)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의와 평가 방법이 비대면 수업, 절대평가로 전환됐다. 대학은 한시적으로 학점 표준화제도 적용을 유예했고 그 결과 2022년 1학기까지 학점 인플레 현상이 지속됐다. (관련 기사: 절대평가 A 학점 비율 급증/대학주보 제1672호 (2021.05.24.))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전공과목 A 학점 비율은 36.5%였다. 이후 전공과목 A 학점 비율은 ▲2020년 1학기 60% ▲2020년 2학기 59.6% ▲2021년 1학기 55.8% ▲2021년 2학기 55.8% ▲2022년 1학기 55% ▲2022년 2학기 37.6%를 나타냈다.

2022년 2학기 전공과목 A 학점 비율(37.6%)은 2019년 2학기 전공과목 A 학점 비율(36.5%)과 비슷하다. 학점 인플레의 고점이었던 2020년 1학기(60%)와 비교하면 22.4%p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또한 기존 학점 표준화제도 기준인 B+ 이상 비율 40% 역시 제자리를 찾았다. 2022년 1학기 67.6%에서 2022년 2학기 45.5%로, 2019년 2학기 비율인 44.9%와 비슷한 수치로 떨어졌다.

그러나 B+ 이상 전공과목 학점 비율이 60%를 웃도는 학과는 여전히 존재했다. 해당 학과는 ▲간호학과 ▲미술대학 ▲기약과 ▲성약과 ▲골프 산업학과 ▲체육학과 ▲무용학부이다. 이들은 과 특성상 실험 및 실습과목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학사지원팀은 “B+이상 40% 이내 학점 부여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교과목도 규정상 존재한다”며 “수강인원 10명 미만 강좌, 교직과목, 군사학 과목, 실험·실습, 설계·실기 과목, 전체영어강좌, 교무처장의 허가로 별도의 평가 기준이 지정된 강

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점 인플레 현상은 완화됐지만, 2020년 1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 ‘역차별’ 문제가 생겼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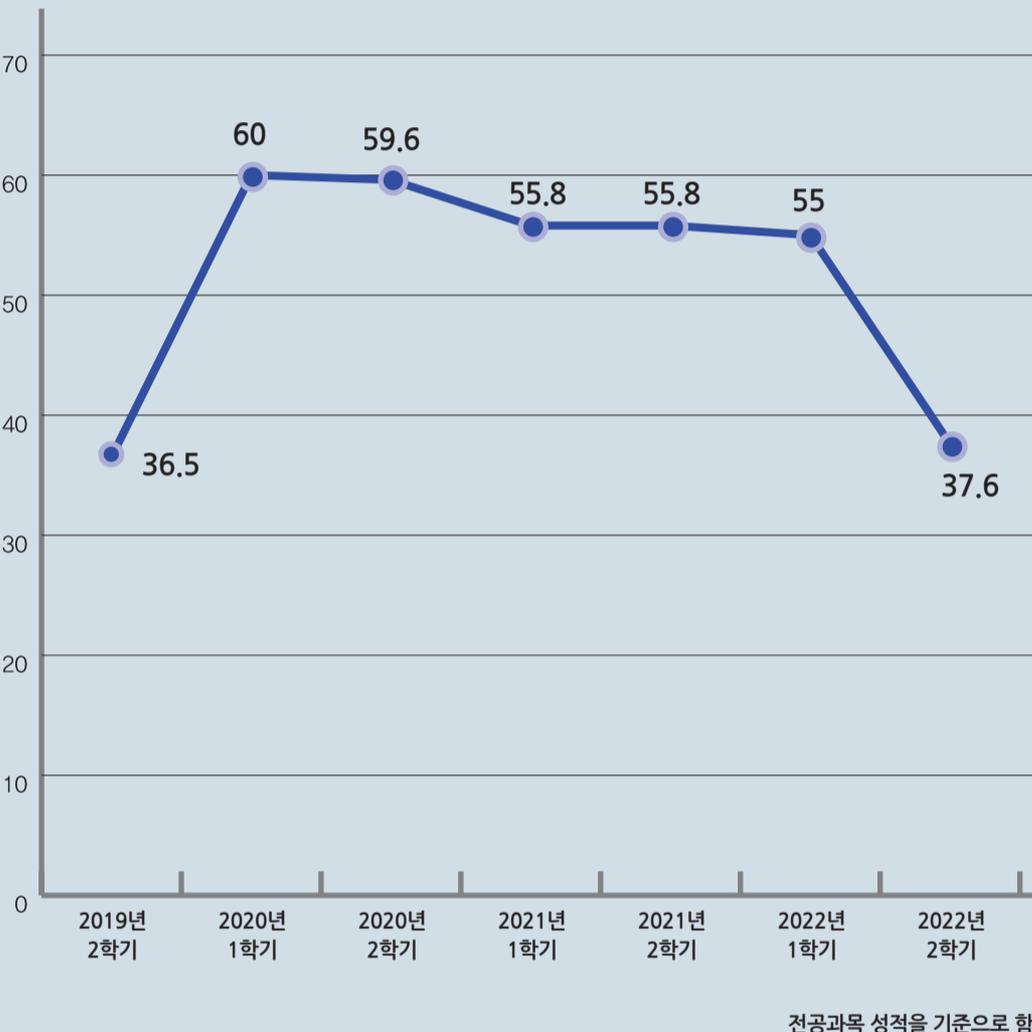
생명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2019학번 A 씨는 “입대를 이유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군 휴학을 해서 2022학년도 1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해당 기간 절대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균 성적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며 “2019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학점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절대평가를 실시하던 시기에 학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하고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학점은 많은 활동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교환학생 선발의 경우, ‘2023년 1학기 파견 교환학생 모집’부터 학점 비중을 25%에서 50%로 늘려 20학번 이전에 입학한 학생 및 절대평가 시절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불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교환학생 선발, 학점·어학점수 비중 대폭 확대/대학주보 제1684호 (2022.04.11.))

다전공 선발과 대학원 진학에도 학점 인플레의 영향은 존재한다. 2019년 2학기에 휴학해 2021년 2학기에 복학한 B 씨는 다전공 신청에서 불리함을 겪었다. B 씨는 “복학한 뒤 다전공을 하려 했지만, 학점 인플레로 학점 컷이 높아 원하는 학과 다전공을 못 했다”고 전했다. 이어 B 씨는 “대학원 선발은 학점의 영향이 커 염려스럽다”며 “절대평가 시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학점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재학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 인플레의 불리함을 호소할 수 있다”며 “이에 각 부서에서 학점 반영 방식 등을 논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학기별 A학점 비율추이(%)



전공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함

2022년 2학기부터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해소되고 있다.

## 불법복제 교재 판매 학생, 사회봉사 처분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불법 복제 교재를 판매한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및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출판문화원은 우리학교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서 불법 복제 PDF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아 지난 3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34개의 판매 글과 16개의 구매요청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이중 출판문화원은 ‘인간

의 가치 탐색(개정 5판)’의 『성찰과 표현』, 『주제 연구』, 『세계시민』의 불법복제 PDF를 판매한 학생을 특정해 학생지원센터 징계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이들에게 징계 및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출판문화원은 “PDF 유통은 불법임을 여러 차례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도서를 익명성에 기대어 판매하는 것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외부 기관에 의뢰해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학교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고,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의 징계 처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PDF 유통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저작권법 제136조에는 저작권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자책 파일 형태의 복스캔 서비스 (PDF) 행위 ▲학과 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해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교재의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복사 제본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3면으로 이어짐